

#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

Vol.02 자전거 안전 편



## CONTENTS

- 
- 01 SAFETY GRAPHIC**  
안전그래픽으로 보는 세종시 자전거 사고 현황

---

  - 02 SAFETY NOW**  
자전거 안전문화를 만드는 두 가지

---

  - 03 INTERVIEW**  
행복도시 자전거 순찰대 조경진 대장

---

  - 04 SAFETY THINK**  
자전거 안전 수칙과 표지판

---

  - 05 SAFETY CHECK**  
자전거 기본관리 및 자가점검 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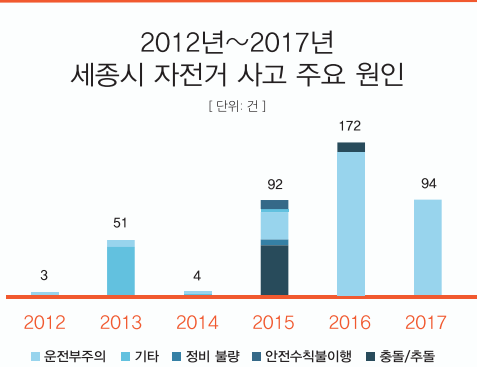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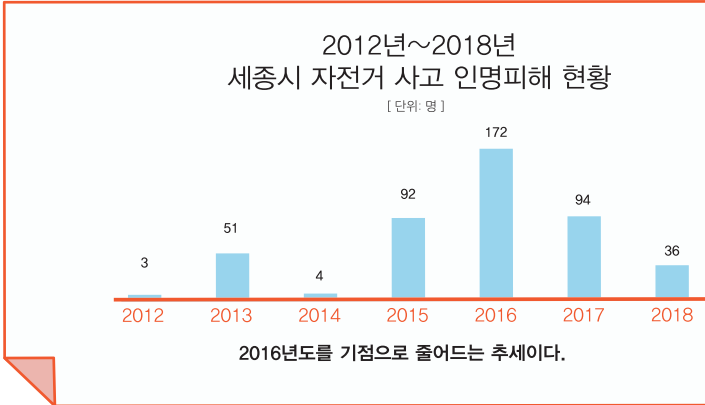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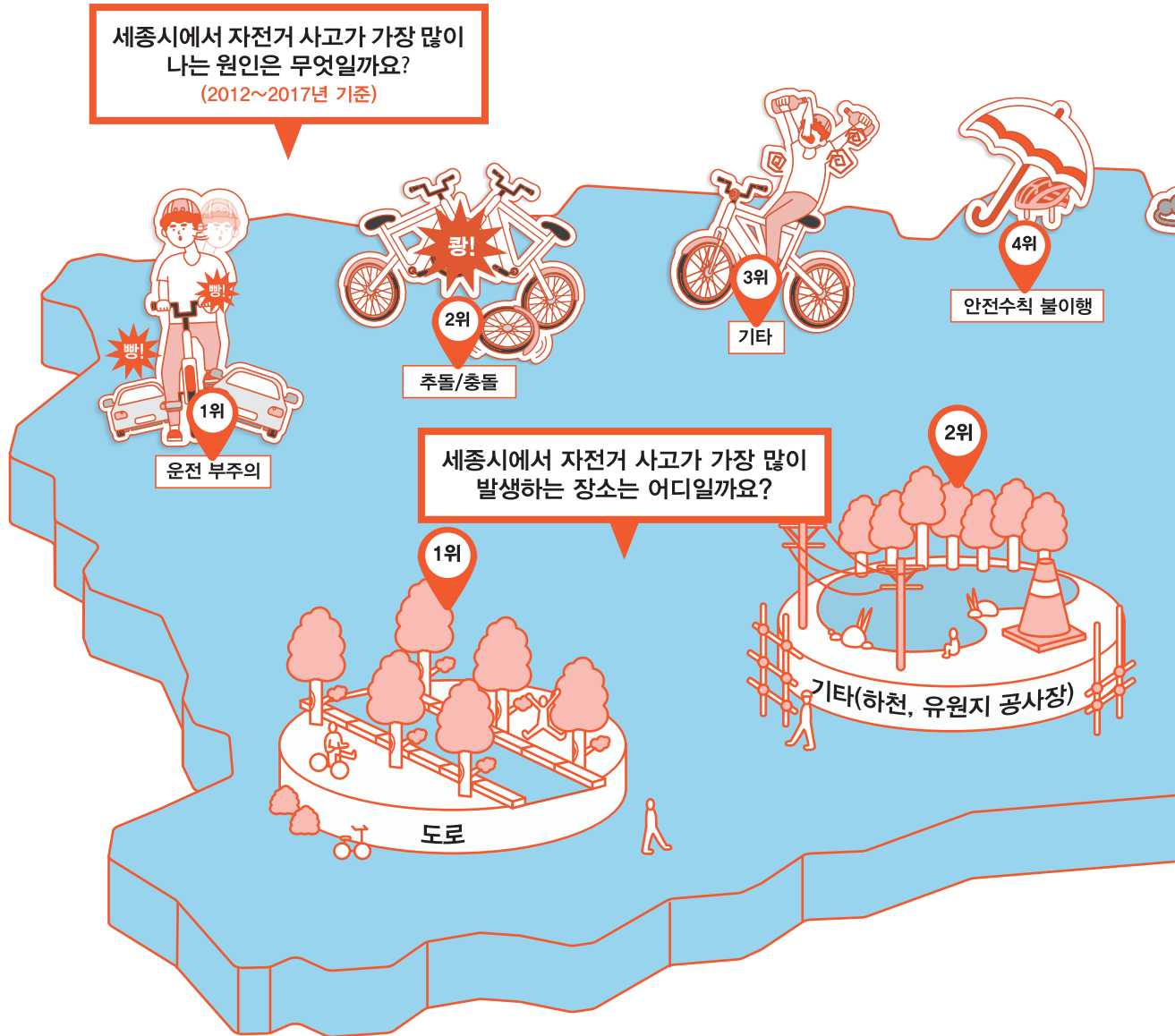
  - 06 SAFETY TIP**  
행복도시에서 자연과 어울리는 '어울링' 활용법

---

  - 07 SAFETY MANUAL**  
자전거를 즐겨탄다면 기억해주세요

# 쾌적한 도시에서 누리는 녹색교통이 더욱 안전하도록

전국에서 발생한 자전거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 발생 원인 중 이 자전거 이용 인프라 구축 및 정비에 못지 않게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 자전거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전국 최초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 세종시에서 보다 안전하게 '녹색교통'을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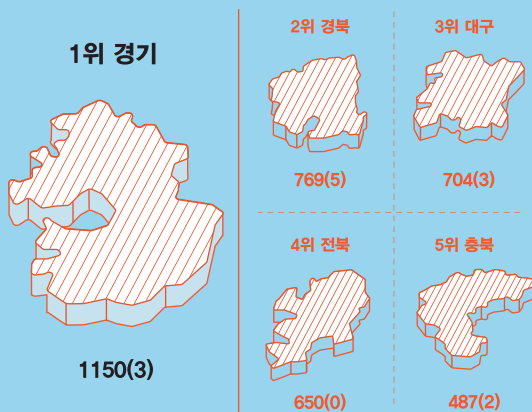
용자의 운전 부주의가 5,330건 중 3,239건으로 가장 높다.  
 산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다.  
 금을 지원하며 자전거 친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다.



## 전국으로 보는 자전거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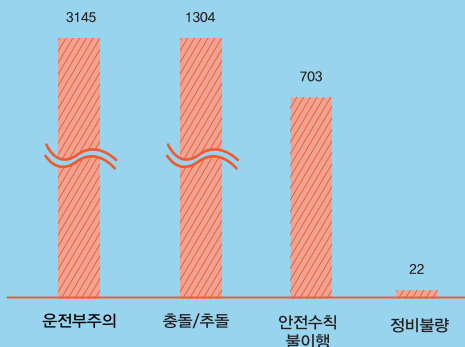
### 자전거 사고가 많이 일어난 5개 도시는 어디일까요?

[ 2017년 기준 단위: 명 / 부상(사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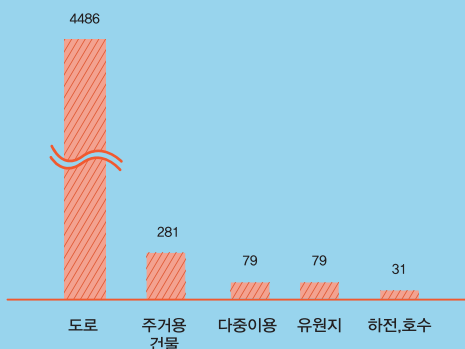
### 자전거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2017년 기준 단위: 명 ]



### 자전거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 2017년 기준 단위: 명 ]



### 2012년~2017년 세종시 자전거 사고 주요 발생 장소

[ 단위: 명 ]



'두 바퀴' 위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 자전거를 즐거 타다면 기억해주세요.

출퇴근할 때도, 여가 시간을 즐길 때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자전거 탄 풍경이 아름답기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무심히 지나쳤다면 이제부터라도 꼭 기억해주세요.  
'두 바퀴' 위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면  
안전이 필요합니다.

## '정비'로 시작하는 안전라이딩

자전거 정비는 상시적으로 해야 해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려면 자전거를 수시로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그리고 체인 이 세 가지만이라도 잊지 말고 점검하세요. 자신의 안전은 물론 자전거의 수명도 늘릴 수 있습니다.



## 답답해? 안전해!

타기 전에 꼭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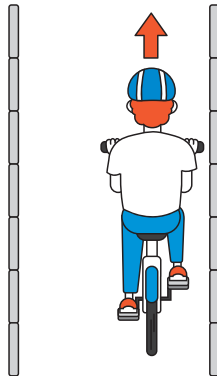
답답하다는 이유로, 거주장소라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 시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안전모입니다. 안전모와 안전조끼 등 안전용품 착용을 습관화합시다.



## 왼쪽보다 안전한 오른쪽

우측통행으로,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해요.

국도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측통행 시 '보행자 기준' 충돌 횟수는 7~24%, 교통사고 발생률은 20% 감소한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 자동차도, 사람도 우측통행을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 역시 우측통행으로,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해야 안전합니다.



## 편리보다 안전! 두 손은 핸들에

운전 시 우산, 핸드폰, 이어폰은 사용하지 마세요.

자전거를 탈 때는 핸드폰을 사용해서선 안됩니다. 청거리 주행 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자전거를 멈춘 상태에서 조작해야 합니다. 또 이어폰 사용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주세요. 경적소리 등 주변 상황을 감지할 수 없어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우산보다 우비를 입으세요. 자전거 운전 시에는 두 손이 핸들을 잡고 있어야 안전합니다.



## 자체발광! 어둠 속에서도 안전해요

어두울 땐 꼭 전조등과 반사등을 사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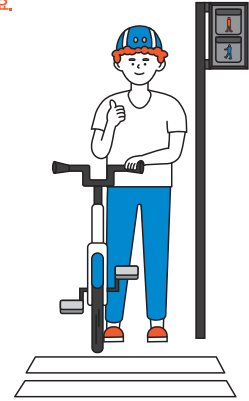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거나 반사등,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조등이나 후미등 또는 매직베이크, 형광스티크, 형광밴드, 반사체 스티커 등 발광장치를 꼭 사용하세요.



## 때론 자전거와 함께 걸어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가세요.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구역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널 경우 '차 운전자로, 내려서 끌고 갈 경우 '보행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되,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합니다.



## 오늘은 내가 신호등

큰길로 진입할 때는  
잠시 멈추고 안전을 확인하세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 또는 좁은 길에서 큰길로 진입할 경우 잠시 멈추고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로부터 자전거는 억자나 다름없기 때문에 큰길로 진입할 때는 반드시 신호를 준수하고, 잠시 멈추어 안전을 확인한 후 타야 합니다.



## 음주 후 라이딩, 당연히 불법!

음주 후에는 절대로 타지 마세요.

도로교통법 50조 8항\*에 의하면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것은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도 높아지고 형사처벌도 될 수 있으니 절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50조 8항: 자전거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이 함유된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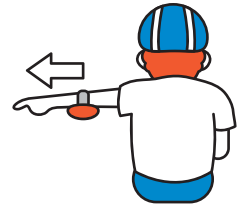


자전거를 타기 전에 미리 알아두세요.  
**자전거의 방향지시등**  
**'수신호'**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중 별표2'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가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탈 때는 수신호와 음성으로 방향과 상황을 알리며 주행해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수신호를 함께 배워봅시다.

**1 좌회전**

왼팔을 곧게 펴고 손끝이 왼쪽으로 가게 쪽 펴줍니다.  
 이때 손등은 하늘을 향하게 하세요.



**2 우회전**

왼팔의 팔꿈치를 90도로 굽히고,  
 손바닥이 얼굴을 향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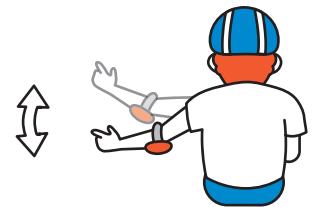
**3 정지**

좌회전 할 때의 수신호에서 손바닥을  
 약 45도 각도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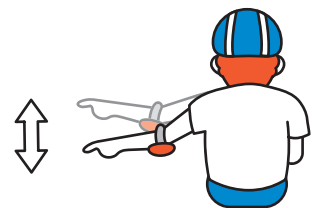
**4 앞지르기**

오른팔(왼팔)을 우측(좌측)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들어 알립니다.



**5 서행**

왼팔을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아래, 위로 흔들립니다.





**SAFETY NOW** | 자전거 안전문화를 만드는 두 가지

## ‘자전거 친화도시’ 세종시가 ‘자전거 안전도시’가 되기 위하여

세종시의 공영자전거 ‘어울링’ 이용자는 2017년 19만 건으로 집계됐다. ‘어울링’을 이용하지 않는 자전거 인구까지 포함하면 20만을 훌쩍 넘는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셈. 하지만 ‘녹색교통’ 이용자 수만큼 관련 안전사고 발생 역시 늘어나고 있다. 보다 안전한 자전거 안전문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는 꼼꼼한 시설 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준수다.

자전거 친화도시 세종시의 자전거 안전 현황은 어떠할까? 세종시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2016년 172건으로 최고를 찍은 후 2017년에는 92건, 2018년에는 36건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전거 사고의 원인으로는 ‘안전수칙 불이행 또는 개인의 부주의가 최근 8년간 총 452건의 사례 중 295건을 차지하며 가장 압도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로는 ‘도로가 총 452건 중 2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전거 사고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보급대수만큼 자전거 이용률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용률이 늘어나면 사고율이 늘어나는 것은 인지상정. 그러나 발생할 만한 자전거 안전사고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알아둔다면 세종시의 자전거 안전은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자전거 안전사고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자동차-자전거’ 사고와 ‘보행자-자전거’ 사고, 그리고 ‘자전거-자전거’ 사고가 바로 그것이다. ‘자동차-자전거’ 간 사고는 차도나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하며 자전거 시설의 안전 부족과 자동차 및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한 통행에 대한 지식 및 의식 부족, 그리고 위험 상황에 대한 주의 부족이 원인으로 보인다. ‘보행자-자전거’ 간 사고는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나 하천, 공원 등 보행로가 인접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주로 발생하며 사고의 원인으로는 좁은 도로 폭, 자전거와 보행자의 안내표지 부족, 안전도가 떨어지는 자전거 시설의 문제, 마지막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보행자 보호 의식 부족이 있다. 자전거 도로에서 주로 발생하는 ‘자전거-자전거’간 사고는 서로 직각 방향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가장 많고, 앞서 가던 자전거를 추돌하는 사고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유형의 사고는 전방주시 태만,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와 중앙선 침범 등 자전거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한 것이다. 자전거 안전사고를 제로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 차원의 자전거 시설 안전도 개선과 시민

개인 차원의 자전거 안전의식 개선이 가장 우선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가졌다 하더라도 갈고 닦지 않으면 아차하는 사이에 위험요소로 돌변할 수 있다. 이같은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방법은 단 하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정기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다. 더불어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됨을 염두에 두고, 차량을 운전하듯 적절한 긴장감을 지니고 자전거를 운전해야 할 것이다.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가 된 도로는 진입하지 않도록 하며, 자전거의 통행이 제한된 고가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다. 또한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도와 주행 중 가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알린다. 또한 보도는 보행자의 공간이므로 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 경우에는 경찰관의 수신호를 따르며, 자전거를 끌고 갈 때는 보행자 신호를 따른다. 이처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자전거 안전보험을 미리 준비한다면 보다 든든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건강 증진과 레저 스포츠, 통학, 출퇴근, 근거리 이동 등의 수단으로 각광받는 자전거. 안전한 이용문화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세종시의 자전거 안전 인프라가 만나 세계적인 ‘자전거 안전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 2017 재난연감, 행정안전부

글 | 김슬기(오세이프 에디터)



**INTERVIEW | 행복도시 자전거 순찰대 조경진 대장**

## 건강도 챙기고 봉사도 즐기는 나는야 행복도시 자전거순찰대

세종시는 출범 7년 만에 33만명의 도시로 급부상했다. 타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500명당 1명 꼴로 경찰 인력이 배치돼 있는 반면 세종시의 경우 경찰 1명당 주민 1,500명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인 것. 하지만 행복도시 세종에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복도시 자전거 순찰대’가 있다. 조경진 대장을 만나 행복도시 자전거 순찰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전 MBC 작가 이윤숙(이하 이) | 행복도시 자전거순찰대는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조경진 대장(이하 조) |** 행복도시 자전거 순찰대는 자전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의기투합하여 2015년 7월 결성한 순수 봉사단체입니다. 현재 200여 명의 회원들이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로 5개 지대(한솔동, 도담동, 아람동, 종촌동, 조치원)를 중심으로 요일을 정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인구수 대비 치안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 경찰 병력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지역 위주로 야간 방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도하여 만든 순찰대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보니 회원들의 자부심이 큰 편입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행복도시 자전거순찰대를 벤치마킹해 민간주도의 순찰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 지난 5년간 순찰활동을 하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조 |** 자전거 순찰대원들은 주로 순찰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경찰 복장과 비슷하다 보니 밤중에 저희와 마주치면 뜨끔(?)하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웃음) 그 덕분에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순찰 중 만나는 시민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편인데, 수고한다고 화답해 줄 때 봉사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이 | 봉사를 하면서 보람도 클텐데 혹시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요?**

**조 |** 자전거 순찰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를 이용해 순찰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필요한 안전장비들도 개인이 구매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함께하는 대원들이 임무 수행할 때 간식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순찰을 돌기 전 대원들이 모여 회의할 일들이 많은 편인데 자전거 순찰대의 사무실이 없다 보니 보이지 않는 어려움도 많습니다. 자전거 순찰대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 세종시는 2014년 공영자전거 어울링을 도입했는데요.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은 편인가요?**

**조 |** 자전거를 타고 세종시를 돌다보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자전거를 즐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세종시 곳곳에 어울링 자전거가 비치돼 있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다보니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호수를 그림 삼아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세종호수공원도 있고요. 금강 자전거길 같은 경우 금강의 숨겨진 비경을 볼 수 있는 명품 코스잖아요. 봄 풍경을 만끽하며 여유롭게 자전거 라이딩 즐겨보시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 요즘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자전거를 탈 때 꼭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이나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조 |** 날씨가 풀리면서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기 전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 라이딩 시 복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가 바로 헬멧입니다.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요. 아이들과 초보 이용자의 경우 넘어지면 대부분 팔꿈치나 무릎을 가장 많이 다치기 때문에 보호대 착용을 권합니다. 또, 햇빛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고글도 착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탈 때는 항상 주위를 둘러보며 방어적으로 운전하는 습관도 길러야 합니다. 특히 야간에 자전거를 탈 때 다른 사물과 명확하게 구별 될 수 있도록 밝은색이나 형광색 옷을 입는 게 좋겠죠. 자전거의 앞뒤에 점멸이 가능한 발광장치 또는 전조등을 장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 겨우내 타지 않던 자전거는 여기저기 고장이 날 수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 미리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조 |** 오래 방치한 자전거는 체인에 녹이 생기기 쉽습니다. 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지거나 다른 부품까지 파손될 수 있어 상태를 미리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공기압입니다. 자전거 타이어의 공기압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빠지게 됩니다. 뽕뽕한 게 좋다는 생각으로 공기압을 최대한 넣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은 이용자의 몸무게와 도로 환경 등에 의해 결정되니까 이 점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조** | 유통업을 하다보니 무거운 물건들을 자주 드는 편인데요. 자전거와 가까워지면서 건강 뿐 아니라 하체 근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친구들과 자전거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지만 자전거 순찰대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도 챙기고, 좋아하는 봉사까지 할 수 있으니 이게 바로 1석2조죠. 자전거 순찰대에 오시면 봉사와 함께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과 행복한 자전거순찰대를 이끌어 가고 싶습니다.

행복도시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는 **조경진** 대장. '행복도시 자전거 순찰대'의 노고가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의식 또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조경진** 대장의 당부처럼 안전장비 착용, 자전거 자가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세종시민**이라면 '행복도시 자전거 순찰대'의 명예 대원으로 손색 **없이** 않을까.

**자전거 순찰대를 이끌어갈 대원들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상시

**가입방법** 네이버 밴드에서 '행복도시 자전거 순찰대' 검색 후 가입

**자격기준** 자전거 운전이 가능하고, 자전거와 세종시를 사랑하는 세종시민

**연령** 제한 없음                      **준비물** 개인 자전거

취재 | 이윤숙(대전 MBC 작가) 사진 제공 | 대전세종연구원

## 세종시민이라면 혜택 받는 자전거 안전보험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예방 못지 않게 중요하다.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듯 자전거에도 보험이 있다. 세종시가 가입한 자전거 안전보험은 세종시에 주민으로 등록된 모든 시민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되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보장 내용을 미리 알아두고 사고예방에도, 사고대책에도 스마트한 안전 엘리트 세종시민이 되어보자.

- 1 보험 내용**    보험계약자: 세종특별자치시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본인
- 피보험자: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청구기간: 자전거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자전거상해 위로금	자전거 사고처리 지원금
보장 내용	세종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small>*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small>	세종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small>*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small>	세종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 기준, 1회에 한해 지급)  <small>*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small>	자전거사고 벌금: 1사고당 2,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
보장 금액	500만 원	500만 원 한도	진단 4주(28일 이상): 10만 원 진단 5주(35일 이상): 20만 원 진단 6주(42일 이상): 30만 원 진단 7주(49일 이상): 40만 원 진단 8주(56일 이상): 50만 원  <small>*단, 4주(28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 20만 원 지급</small>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사고당 3,000만 원 한도

※문의: DB손해보험 02-475-8115 / 세종시청 도로과 044-300-5135

**SAFETY THINK** | 자전거 수칙과 번호판

## 자전거, 면허는 필요 없어도 표지판을 읽는 능력은 필수

차량은 학과시험, 기능시험, 그리고 도로주행시험, 무려 3단계에 걸친 시험제도를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자전거는 공식적인 면허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운전할 줄만 안다면 누구나 핸들을 잡을 수 있다. 그렇기에 더 잘 알아야 하는 자전거 안전표지판과 안전 수칙, 잘 살펴보고 기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라이딩을 즐기자.

글 | 오호라(오세이프 에디터)

자료출처: 도로교통공단

### 자전거 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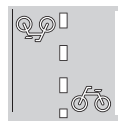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횡단도 노면



자전거 전용도로 노면



자전거 횡단도



보행자 전용도로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

### 자전거 안전 수칙

- 보호장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어린이(13세 미만)가 자전거를 운전할 때, 또는 어린이를 자전거에 태울 때에는 어린이에게 안전모를 착용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자전거는 '차'의 일종이므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는 도로에서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단, 어린이나 노인(65세 이상), 신체 장애인이 자전거를 탈 때는 보도로 통행할 수 있다.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다른 자동차들과의 관계에서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에게는 그들을 위협하는 '차'의 운전자 입장이 된다. 만약 자전거 횡단도가 따로 설치돼 있으면, 그 부분을 이용해 도로를 건넌다.
- 자전거 운전자가 좌회전을 할 때는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지 않고,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 좌회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차로의 가장자리에서 직진해 교차로를 건너 후에 방향을 바꾸어 다시 직진을 하는 2단계 좌회전을 해야 한다.
- 술은 시각기능, 판단력, 운동기능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스스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SAFETY CHECK** | 자전거 기본관리 및 자가점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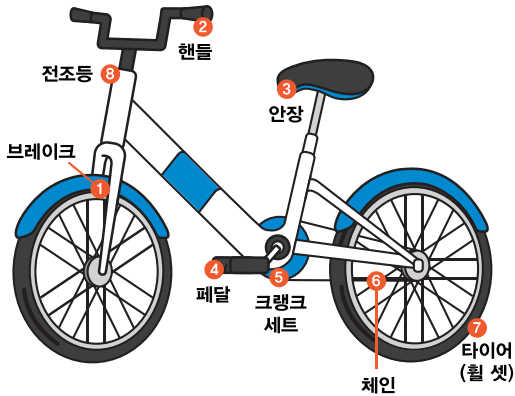
## 나쁜 예감, 정말 피할 수 없을까? 자전거 라이더에게 유용한 기본관리 및 점검 방법

나쁜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다고 한다. 나쁜 예감은 정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인 걸까?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다. 점검 하나로 '나쁜 예감'을 '기쁜 예감'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자전거 자가점검 및 정비를 위한 팁을 소개한다.

글 | 오호라(오세이프 에디터)

자료출처: 도로교통공단

자전거 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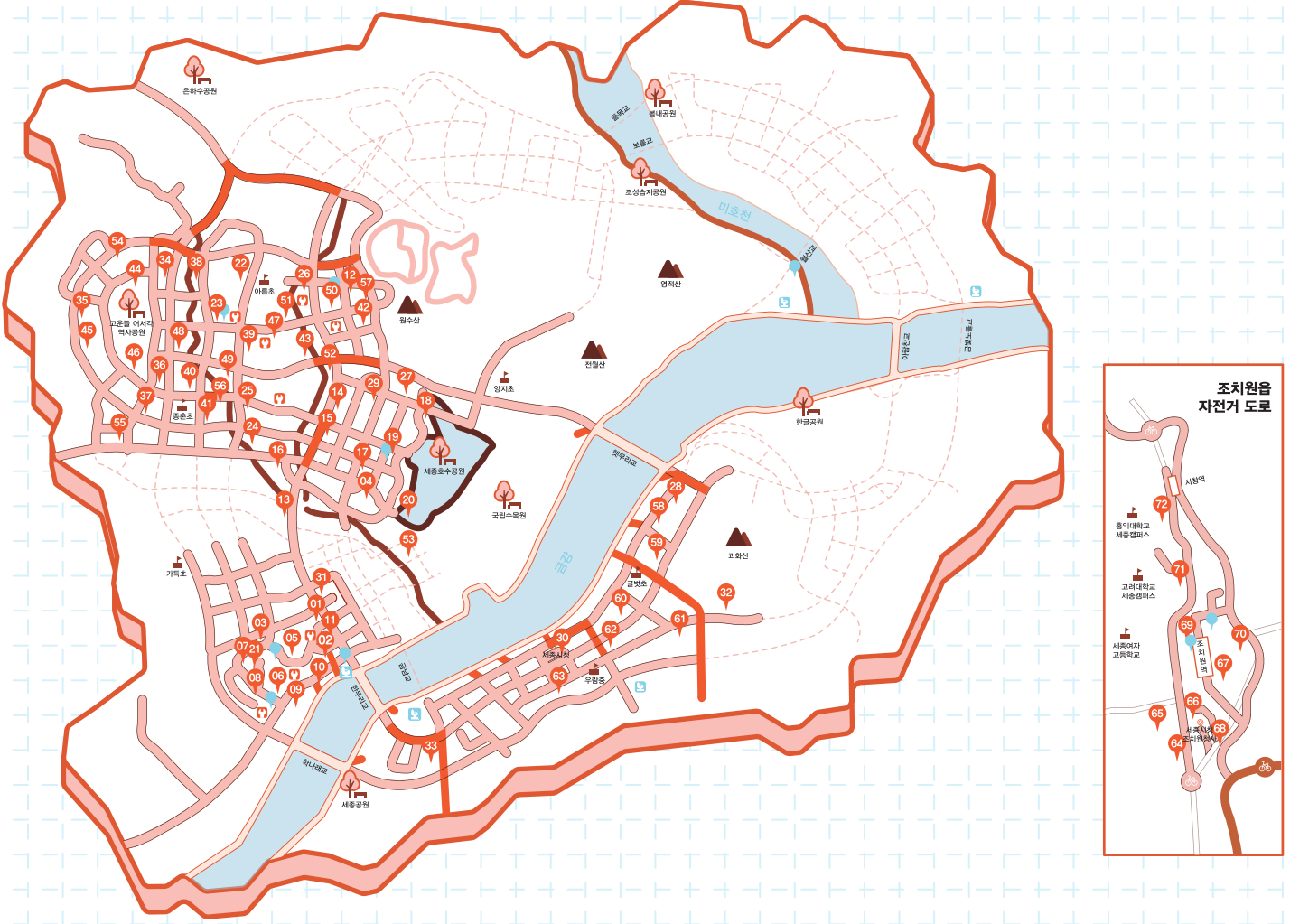
자전거 기본 점검 순서

브레이크 ▶ 핸들 ▶ 안장 ▶ 페달 ▶ 타이어 공기압 ▶ 전조등 ▶ 후미등(반사체)

기본점검 상세

- ① 브레이크: 브레이크 고무의 마모 및 틀어짐을 눈으로 확인하고 앞뒤 브레이크를 한쪽씩 잡으며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
  - ② 핸들: 앞바퀴를 양쪽 가랑이 사이에 끼우고 좌우로 핸들을 세게 움직여 보며 핸들 고정 여부를 확인
  - ③ 안장: 차체와 안장이 일직선인지 확인하고 안장의 수평을 맞춘 뒤 안장에 힘을 가해 고정 여부를 확인. 자신의 신체에 맞는 안장 높이는 바른 자세로 안장에 앉아 있을 때 양 발끝이 지면에 닿을 정도
  - ④ 페달: 고정 여부를 확인
  - ⑤ 크랭크 세트: 휘어지지 않았는지 확인
  - ⑥ 체인: 체인이 너무 느슨하거나 늘어져 있지는 않은지, 앞뒤 기어에 제대로 걸려 있는지, 기름칠은 잘 되어 있는지 확인
  - ⑦ 타이어(휠셋): 타이어의 공기압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것보다는 최대 80%가 적절하며,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적절한 공기압을 주입해야 사고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음
  - ⑧ 전조등: 어두울 때 앞을 밝혀줄 정도로 충분히 밝은지 확인(전조등=백색등)
- ※전조등과 후미등의 색깔은 어두운 밤 자전거의 진행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림' 백배 활용법



- 
- 
- 
- 
- 
- 
- 
- 
- 
- 
- 공공자전거대여소
- 자전거 수리점
- 화장실

세종시 어울림	이용 방법	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
<p>행복도시의 쾌적한 도시 환경에 적합한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림'은 원하는 곳에서 쉽게 대여하고 사용 후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반납하는 녹색교통수단입니다. 세종시 곳곳에 마련된 72개 어울림 대여소에서 편리하게 대여, 사용, 반납할 수 있습니다.</p>	<p>어울림은 만 15세 이상의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 만19세 미만은 보호자의 동의 필요). 어울림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한 정회원(유료, 순회원(일방)은 물론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비회원이어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어울림의 1년권 정회원이 되면 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 모을 수 있습니다. 정회원카드로 어울림과 버스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정회원 서비스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p>

공공자전거 어울림 대여소			
① 첫마을 1단지	⑥ 첫마을 3단지	⑪ 첫마을 4단지	⑮ NH세종특별본부
② 한솔동 주민센터	⑦ 한솔중학교	⑫ 첫마을 5단지	⑯ 첫마을 6단지
③ 첫마을 7단지	⑩ 세종보 홍보관	⑬ 첫마을(BRT 정류장)	⑰ 도당동 주민센터
④ 도시통합정보센터	⑭ 종합민원실(BRT정류장)	⑱ 고릉노동부(BRT정류장)	⑲ 상남중학교
⑤ 문화체육관광부	⑲ 국무조정실(4동생기복관)	⑳ 호수공원 (정부세종컨벤션센터)	㉑ 호수공원(제1주차장)
⑥ 한솔유치원	㉒ 범지기마을 10단지	㉓ 이룸중 주민센터	㉔ 가재마을 9단지
⑦ 가재마을 11단지	㉕ 도당마을(BRT 정류장)	㉖ 한빛마을 2단지(세종1번가)	㉗ 국립연구단지
⑧ 공작타워위원회(해강수신부)	㉘ 세종시청	㉙ 국제청	㉚ 한국개발연구원(KDI)
⑨ 사회복지미널	㉚ 가락마을 21단지	㉛ 가락마을 13단지	㉜ 가락마을 8단지
⑩ 가락마을 6단지	㉜ 범지기마을 3단지	㉝ 범지기마을 4단지	㉞ 가재마을 4단지
⑪ 종합충무복지센터	㉞ 도당마을 14단지	㉟ 도당마을 1단지	㊱ 도당마을 15단지
⑫ 가락마을 11단지	㊱ 가락마을 4단지	㊲ 범지기마을 11단지	㊳ 범지기마을 1단지
⑬ 가재마을 7단지	㊲ 도당마을 10단지	㊳ 도당마을 2단지	㊴ 인사원센터
⑭ 행복도시 세종홍보관	㊳ 교운동 주민센터	㊴ 교운동(만남로 15)	㊵ 종촌동 주민센터
⑮ 도당마을 16단지	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㊵ 새생마을 9단지	㊶ 새생마을 3단지(BRT정류장)
⑯ 새재마을 5단지	㊵ 호리울마을 9단지	㊶ 호리울마을 4단지	㊷ 자이언파트
⑰ 신동중아파트	㊶ 세종시청(주차타워)	㊷ 전통시장(주차타워)	㊸ 송림마스터(주차장)
⑱ 조치원역(복속)	㊷ 광명버스터미널(주차장)	㊸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㊹ 중앙대학교(세종캠퍼스)

**참고!** 세종시 어울림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www.sejongbike.kr](http://www.sejongbike.kr)를 방문해 보세요. 자세한 이용 방법과 혜택, 유용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OVER STORY

# 일상에 여유를 더하는 자전거, 안전하게 즐겨요

자전거는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교통수단입니다. 미세먼지를 생각하면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만큼 친환경적인 교통수단도 없지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편리할 뿐만 아니라 건강이라는 '덤'까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며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자전거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역시 공공자전거 '어울링'을 운영하는 한편,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과 자전거 보험가입 등 시민들의 '녹색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자전거 안전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자전거 교통사고로 연평균 270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5.9%로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닙니다. 또 최근 4년간 연평균 1만5571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자전거를 이용하며 안전까지 챙겨왔는지 돌아켜보게 됩니다.

이에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는 두 번째 이야기로 '자전거 안전'을 선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전거 역시 차와 다름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QR code

홈페이지(sejong.go.kr)와 QR 코드로도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b>발행</b>	세종특별자치시	<b>편집장</b>	유정
<b>기획</b>	이형복(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 센터장)	<b>편집위원</b>	심준우 / 민경환
<b>디자인·제작</b>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	<b>에디터</b>	김슬기 / 오희라
<b>발행일</b>	2019년 5월	<b>취재</b>	이윤숙(대전 MBC 작가)
		<b>디자이너</b>	오수현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는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위원회,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OSAFE)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매거진의 발간으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안전에 관해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